

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

김선철(NAKL), 권미영(인하대), 황연신(서울대)

<차 례>

- | | |
|------------------|----------------------|
| 1. 서론 | 3.1. 기저 장음의 경우 |
| 1.1. 연구 목적 | 3.1.1. 연령에 따른 선호도 분포 |
| 1.2. 연구 방법 | 3.1.2. 연령별 성별 장음 비율 |
| 2. 전체 경향 | 3.2. 기저 단음의 경우 |
| 2.1. 기저 장음의 경우 | 3.2.1. 연령에 따른 선호도 분포 |
| 2.2. 기저 단음의 경우 | 3.2.2. 연령별 성별 장음 비율 |
| 3. 연령별 변이를 보인 어휘 | 4. 결론 |

<Abstract>

Variation of Word-Initial Length by Age in Seoul Dialect

Seoncheol Kim, Mi-yeong Kwon, Yoen-Shin Hwa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what are the sociolinguistic variables of word-initial length loss in Seoul dialect. 350 people were inquired to pronounce 40 words. Among the informants, 152 were male, and 198 were female. In terms of their age, 49 were twenties, 70 were thirties, 69 were forties, 71 were fifties, and 91 were above sixties. According to our statistics, 18 words show sociolinguistic variation by age, and sex was not a variable. So we can conclude that Seoul dialect is undergoing length loss by age at least. But we need to enlarge the number of words and informants and we also need to adopt other variables like social level, education etc for better understanding of Seoul dialect.

* Keywords: Sociolinguistics, Seoul dialect, length, variable, age, sex

* 본 논문은 김선철[1]의 일부를 발췌하여 확대한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거친 원고가 논문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물론 본 논문의 미비점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1. 서 론

1.1 연구 목적

서울말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 지방의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어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 방송 등 주요한 영역에서 중심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는 서울말이 한국어의 대표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서울말(혹은 중부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타 방언의 연구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연구자들의 단편적인 관찰에 기초한 감이 없지 않았고, 모든 연구의 기반이 되어야 할 대량의 현장 조사 자료를 이용한 것은 드물다. 이는 개인 연구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언어 자료 수집에 관한 한 기초학문 양성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본고는 서울말의 전모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숫자는 아니지만 350명의 서울말 화자를 대상으로 40개 단어의 장단음 선호도를 사회언어학적으로 조사한 조그마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작성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서울말의 장단음은 짧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구분되지 않아서 결국 기저 장음이 사라지고 기저 단음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런데 이러한 관찰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정명숙·황국정[5]을 제외하고 실증적으로 검토된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장단 구분의 소실이 연령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령 이외의 다른 사회언어학적 변수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휘 전체적인 양상인지 아닌지 더 세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가운데에서 본고에서는 성별을 나누지 않은 연령별 변이와 성별을 나눈 연령별 변이를 고찰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제보자로 택한 서울말 화자라 함은 제보자 본인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출신이고 부모 모두 역시 서울, 인천, 경기 출신인 사람을 일컫는다. 서울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말 화자에 대한 정의도 역시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서울말 화자라면 서울의 4대문 안에서 5대 이상 살아온 사람만을 가리킨다고 보거나, 넓은 의미의 서울말 화자라면 타지방 출신이지만 서울말 혹은 이현복[6]에서 일컫는 '서울 말씨'를 배워서 구사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는 일반적으로 표준어 권이라고 여기는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의 언어가 대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보자 선정 기준을

1) 배주채[2], 이승녕[3], 이호영[4], 정명숙·황국정[5] 등 참조.

마련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채택한 사회언어학적 변수는 성, 연령이었고 남성 제보자는 152명, 여성 제보자는 198명이었다. 연령별 집단은 20대 49명, 30대 70명, 40대 69명, 50대 71명, 60대 이상 91명이었다. 제보자 구성에 대한 요약 정보는 <표 1>에 수록하였다.

<표 1> 제보자 구성

연령 성별	남성	여성	계
20대	14	35	49
30대	32	38	70
40대	28	41	69
50대	24	47	71
60대 이상	54	37	91
계	152	198	350

조사 대상 어휘 40개는 조남호[7]에 수록되어 있는 58,438개 가운데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일반 어휘를 필자가 검토하면서 언어현실에서 장단이 유동적이라고 관찰한 것들 가운데 임의로 추출한 일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관찰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부수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기저 장단에 대한 판단은 국립국어연구원 편[8]에 기초하였고,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²⁾.

2) 익명의 한 심사자께서는 기저 장음 어휘의 개수와 기저 단음 어휘의 개수가 같지 않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어차피 국어 전체 어휘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 한 이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장단의 변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각각의 어휘를 동일수로 골라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단으로 최소 대립 쌍이 되는 어휘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1) 조사 대상 어휘

가. 기저 장음(28개)

개나리, 검문검색, 검찰, 경복궁, 경품, 김밥, 넣지, 넣으면, 노발대발, 대천, 대학생, 도끼, 도로, 미술, 방송, 비밀비재, 빵고, 빵으니, 산보, 선남선녀, 수학, 영등포, 오두방정, 오로지, 우산, 이간질, 장국, 타점

나. 기저 단음(12개)

거리, 놓고, 놓아, 단점, 대전, 미국, 배구, 영화, 요구, 요인, 자본, 장차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의 내용으로 된 질문지에 마련된 문장을 제보자로 하여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게 하여 조용한 곳에서 녹음하였다. 조사 대상 어휘가 억양구나 강세구 초두에 와서 장음이 제대로 실현되게끔 여러 번 소리내어 말하게 한 다음 본인이 자연스럽게 느꼈을 때 녹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장음인지 단음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여 어느 한 쪽으로 발음하도록 하였고, 녹음 결과를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많은 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단의 성별 연령별 변이를 관찰하는 것이므로 관찰 대상 모음의 절대 길이나 상대 길이를 측정하여 통계처리하지는 않았다.

(2) 질문지의 내용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검찰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경복궁은 고종 4년에 재건되었다.

경품 행사로 백화점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댔다.

김밥에 맛살을 넣으니 한결 맛이 좋다.

걸을 때 손을 호주머니에 넣지 마라.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건강에 해롭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놓고 있다.

물고기를 놓아주었다.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셨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다.

대천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이 넓기로 유명하다.

대학생이 된 막내는 요새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다.

도끼로 발등을 찍었다
 도로는 귀성 차량들로 꽉 막혔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다.
 미술가들이 광복절을 기념하여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방송에서는 이번 사건을 연일 크게 다루고 있다.
 배구 경기는 한 팀이 여섯 명으로 구성된다.
 요즘은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어머니는 방앗간에서 떡살을 뿜고 계셨다.
 깨를 잘 뿜으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한다.
 산보는 건강에 좋다.
 선남선녀들이 쌍쌍으로 모여 파티를 열었다.
 수학 선생님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문제를 풀어 주셨다.
 영등포역에서 경부선을 타고 부산으로 출발하였다.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섰다.
 오두방정을 떨면서 돌아다니지 마라.
 오로지 너만 믿는다.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 주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요인부터 밝혀야 한다.
 우산을 펴자마자 비가 그쳤다.
 나래는 승민이와 수진이 사이를, 이간질하였다.
 자본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장국에 호박을 넣고 칼국수를 끓였다.
 장차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
 타점을 높이기 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하였다.

2. 전체 경향

정명숙·황국정[5]에서는 123명의 화자가 장단 짝을 이루는 48개의 한자어 장단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노년층으로 갈수록 장단 구분이 잘 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젊은 층으로 갈수록 장단을 구별하는 어휘의 양이 적어지며 구별 정도도 미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적은 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대로 제보자 수를 대폭 늘려서 기존의 관찰 내용과 연구 성과를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사실을 밝히려 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 어휘에 대해 제보자 전체가 어떤 응답을 보였는지 살펴보겠다. 이는 기저 장단의 유동성을 일별함과 동시에 기저 장단의 판별 기준으로 삼은 국립국어연구원 편[8]의 기술이 현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2.1 기저 장음의 경우

조사 단어 28개 중 장음으로 발음한 비율이 50%를 넘는 단어는 ‘비일비재’와 ‘장국’, ‘대천’ 세 단어뿐이었다. 이 중에서 ‘비일비재’만이 약 65%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을 뿐 ‘장국’과 ‘대천’은 55%와 50%로 반 정도만이 장음으로 발음하고 있었다. ‘비일비재’의 장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다른 단어들을 함께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어휘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³⁾

‘개나리’, ‘경복궁’, ‘경품’, ‘대학생’, ‘수확’, ‘영등포’, ‘오로지’, ‘우산’ 등 8개 단어는 장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채 20%를 넘지 않았다. ‘검문검색’, ‘검찰’, ‘김밥’, ‘노발대발’, ‘도끼’, ‘도로’, ‘미술’, ‘방송’, ‘산보’, ‘선남선녀’, ‘오두방정’, ‘이간질’, ‘타점’ 등 13개 단어는 20%에서 50%까지의 장음 선호도를 보인 단어들이다.

동사 ‘넣다’와 ‘뺏다’의 활용형에 있어서, 활용형의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될 경우에는 어간인 제1 음절에 기저 장음이 그대로 보존되나 활용형의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에는 어간이 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현재도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활용형인 ‘넣으면’, ‘뺏으니’에서는 어간인 제1 음절이 100% 가까이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활용형인 ‘넣지’, ‘뺏고’의 경우에는 각각 36%와 43%의 장음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용언 어간의 기저 장음이 단음화 되어 가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서울말에서 장단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그간의 관찰이 적어도 조사 대상 어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어휘마다 장단 구별의 정도 차가 다르다. 이는 정명숙·황국정[5]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3) 그런데 어휘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면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원리로 추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 같은 모음 /l/가 연달아 나오므로 모음충돌이 벌어지고, 따라서 모음충돌 회피의 일환으로 /j/가 삽입된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결과적으로 /l/+j/+l/라는 연쇄가 생성되어서 칭취 적으로 첫 음절이 길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표 2> 기저 장음 단어의 발음 선호도

항목	발음 유형	제보자 수	백분율
개나리	장음	27	7.71%
	단음	323	92.29%
검문검색	장음	124	35.43%
	단음	226	64.57%
검찰	장음	93	26.57%
	단음	257	73.43%
경복궁	장음	9	2.57%
	단음	341	97.43%
경품	장음	64	18.29%
	단음	286	81.71%
김밥	장음	104	29.71%
	단음	246	70.29%
넣지	장음	126	36.00%
	단음	224	64.00%
넣으면	장음	4	1.14%
	단음	346	98.86%
노발대발	장음	115	32.86%
	단음	235	67.14%
대천	장음	173	49.43%
	단음	177	50.57%
대학생	장음	26	7.43%
	단음	324	92.57%
도끼	장음	148	42.29%
	단음	202	57.71%
도로	장음	108	30.86%
	단음	242	69.14%
미술	장음	112	32.00%
	단음	238	68.00%

방송	장음	156	44.57%
	단음	194	55.43%
비일비재	장음	229	65.43%
	단음	121	34.57%
빵고	장음	151	43.14%
	단음	199	56.86%
빵으니	장음	3	0.86%
	단음	347	99.14%
산보	장음	134	38.29%
	단음	216	61.71%
선남선녀	장음	143	40.86%
	단음	207	59.14%
수학	장음	45	12.86%
	단음	305	87.14%
영등포	장음	47	13.43%
	단음	303	86.57%
오두방정	장음	81	23.14%
	단음	269	76.86%
오로지	장음	64	18.29%
	단음	286	81.71%
우산	장음	35	10.00%
	단음	315	90.00%
이간질	장음	107	30.57%
	단음	243	69.43%
장국	장음	193	55.14%
	단음	157	44.86%
타점	장음	108	30.86%
	단음	242	69.14%

2.2 기저 단음의 경우

이번 조사에 사용된 기저 단음 12개의 단어의 현실 발음을 검토한 결과 ‘거리’, ‘미국’, ‘요구’ 등 3개 단어는 350명의 제보자 가운데 약 40% 정도가 장음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선호도라면 이들 단어의 제1 음절이 기저 단음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나머지 9개 단어의 경우는 장음 선호도를 보인 제보자의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놓다’는 기저형이 단음이므로 전통적으로는 활용형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되든, 모음으로 시작되든 모두 단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단어이다. 실제로 이 단어의 장단을 조사해본 결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활용형 어미 ‘-아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단음으로 실현되었으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활용형 어미 ‘-고’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20% 정도만이 장음으로 실현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여전히 기저 단음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표 3> 기저 단음 단어의 발음 선호도

항 목	발음 유형	제보자 수	백분율
거 리	장 음	133	38.00%
	단 음	217	62.00%
놓 고	장 음	64	18.29%
	단 음	286	81.71%
놓 아	장 음	2	0.57%
	단 음	348	99.43%
단 점	장 음	71	20.29%
	단 음	279	79.71%
대 전	장 음	28	8.00%
	단 음	322	92.00%
미 국	장 음	144	41.14%
	단 음	206	58.86%
배 구	장 음	169	48.29%
	단 음	181	51.71%

영 화	장 음	41	11.71%
	단 음	309	88.29%
요 구	장 음	130	37.14%
	단 음	220	62.86%
요 인	장 음	86	24.57%
	단 음	264	75.43%
자 본	장 음	56	16.00%
	단 음	294	84.00%
장 차	장 음	107	30.57%
	단 음	243	69.43%

3. 연령별 변이를 보인 어휘

기저 장음 28개와 기저 단음 12개 가운데 사회언어학적 변이 가운데 하나인 연령별 변이를 보인 단어는 각각 14개, 4개 총 18개였다. 그런데 이 비율은 무의미한데 왜냐하면 조사 대상어가 국어의 어휘 전체도 아니고 어떤 특정 부류에 속하는 것도 아닌 무작위 추출물이었기 때문이다. 즉 14/28, 4/12이라는 수치는 우연의 산물이다.

본 절에서는 사회언어학적인 변이가 관찰된 18개의 어휘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통틀어 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 18개의 어휘는 앞의 전체 경향에서 기저 장단에 대한 선호 비율이 어느 한 쪽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만이 아니다. 논의의 순서는 기저 장음의 경우와 기저 단음의 경우 각각에서 우선 각 어휘의 연령별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 연령별 변이에 있어서의 성별 기여도를 살펴볼 것이다⁴⁾. 그런데 성별 연령별 제보자의 숫자가 같지 않으므로 집계된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성별 연령별 선호도 차이를 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 대신 각 소집단 전체 숫자에 대해서 장음 혹은 단음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어휘의

4) 연령별 변이를 보이지 않은 나머지 어휘에 있어서 성별로 체계적인 연령별 변이를 보이는 경우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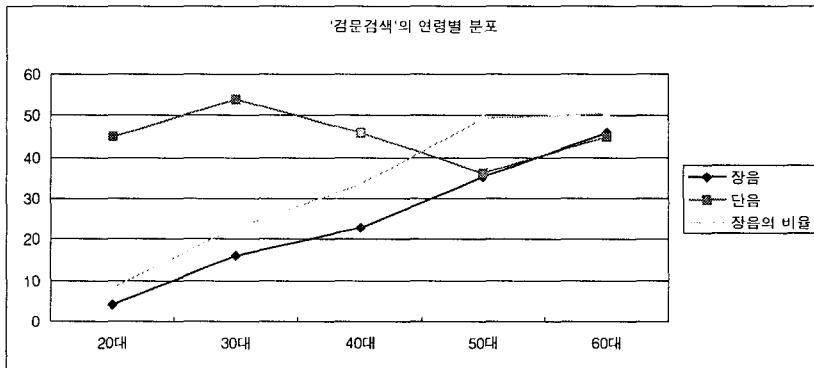
장음 응답에 있어서 20대 남성이 15/30, 20대 여성이 10/20이라는 수치를 보았다면, 두 집단은 모두 50%라는 장음 선호도를 보여서 이에 관한 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의로 장음을 기준으로 기술하겠다.

3.1 기저 장음의 경우

3.1.1 연령에 따른 선호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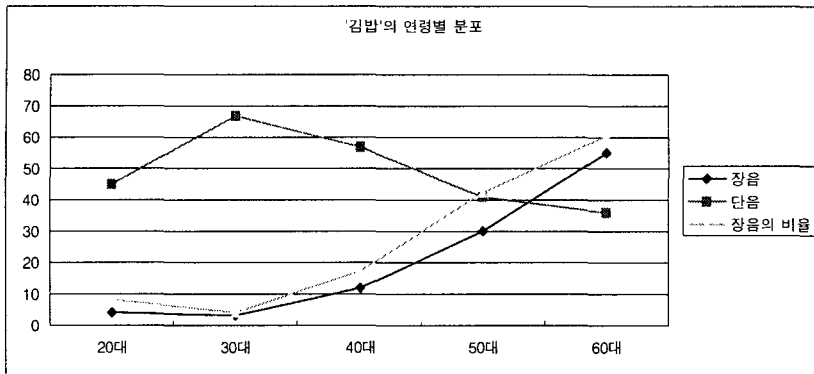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기저 장음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가 체계적으로 나타난, 즉 젊은 세대로 갈수록 장음 선호도가 낮아지고 나이든 세대로 갈수록 장음 선호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어휘 14개를 다룬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집계 자료는 생략하고 각 어휘별로 장음 선호도, 단음 선호도, 그리고 장음의 비율⁵⁾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모든 장음의 비율 곡선이 우 상향이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음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에서 X축은 세대이고, 장음, 단음에 대한 Y축은 응답의 개수, 장음의 비율에 대한 Y축은 퍼센트이다).

‘김밥’, ‘뽕고’, ‘오두방정’, ‘타점’에서처럼 20대의 장음 선호도가 30대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방송’처럼 30대의 장음 선호도가 40대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연령별 선호도의 체계성을 무너뜨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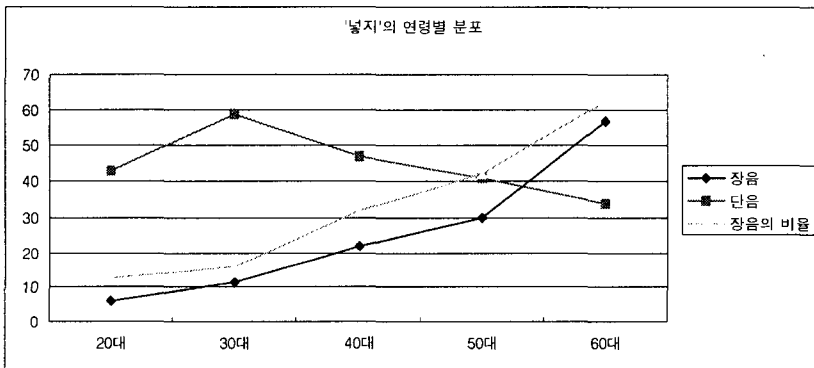


<그림 1> '검문검색'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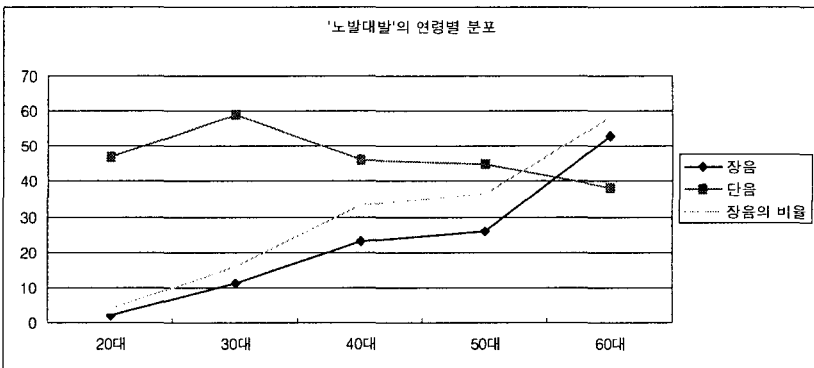
5) 본고에서 이르는 장음의 비율이란 전체 응답 중 장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검문검색'에 대한 30대 남성의 선호도는 $(5 \cdot 100) / (5 + 27) \%$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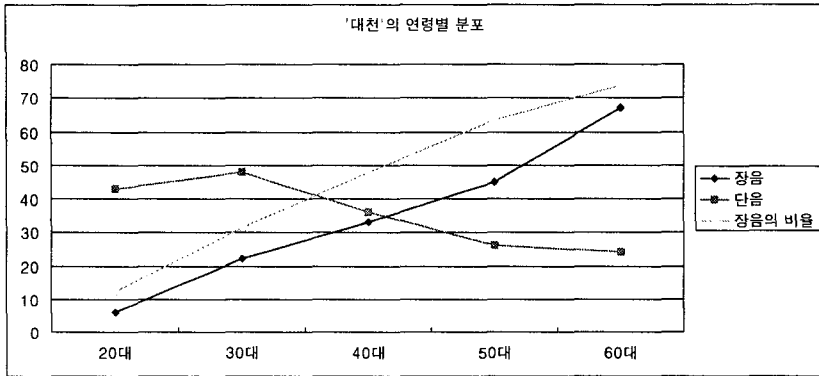
<그림 2> '김밥'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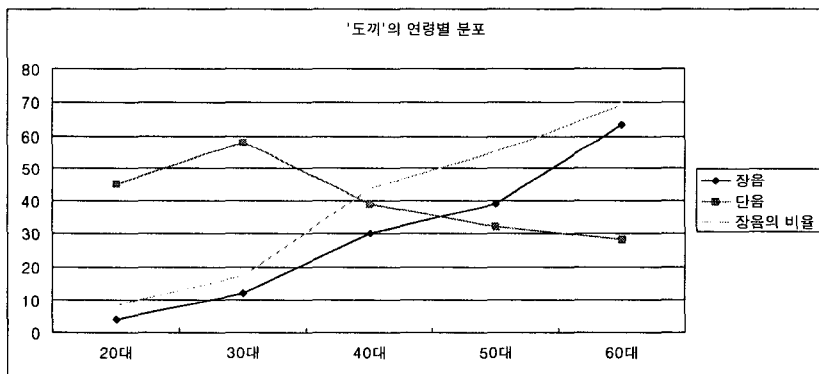
<그림 3> '냉지'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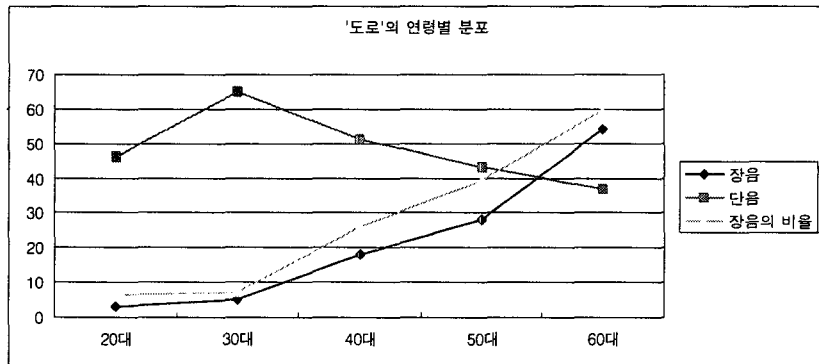
<그림 4> '노발대발'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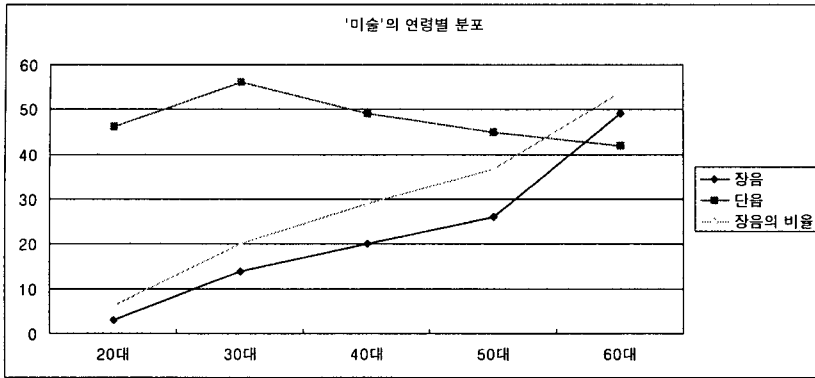
<그림 5> '대전'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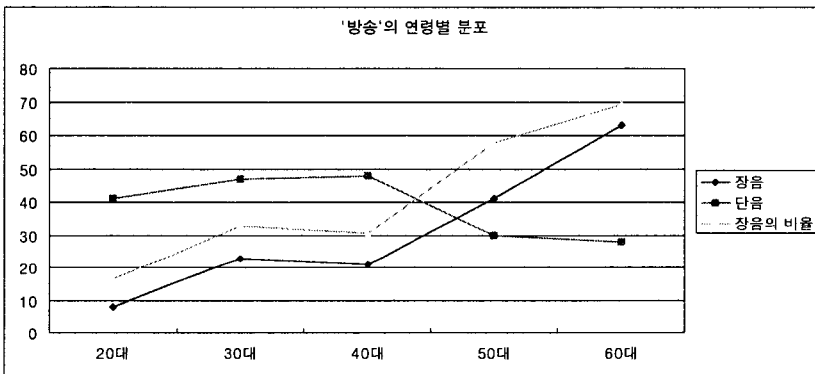
<그림 6> '도끼'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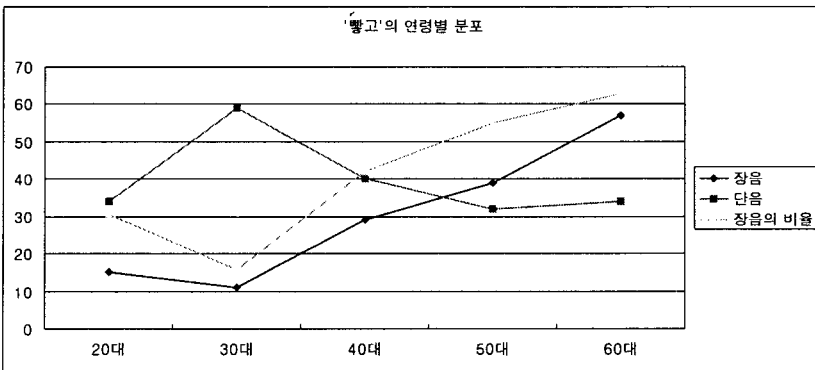
<그림 7> '도로'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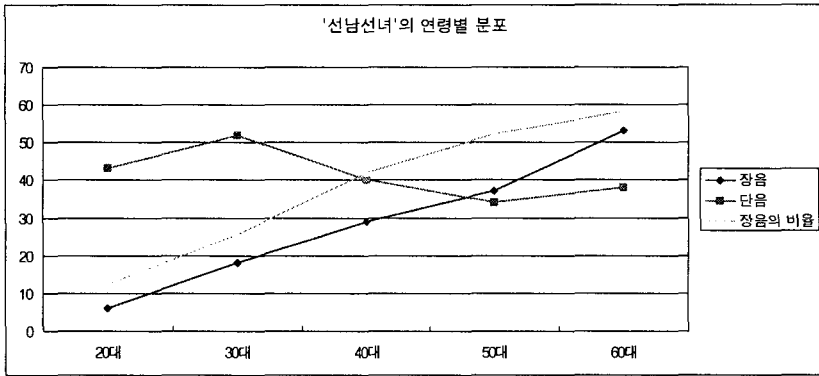
<그림 8> '미술'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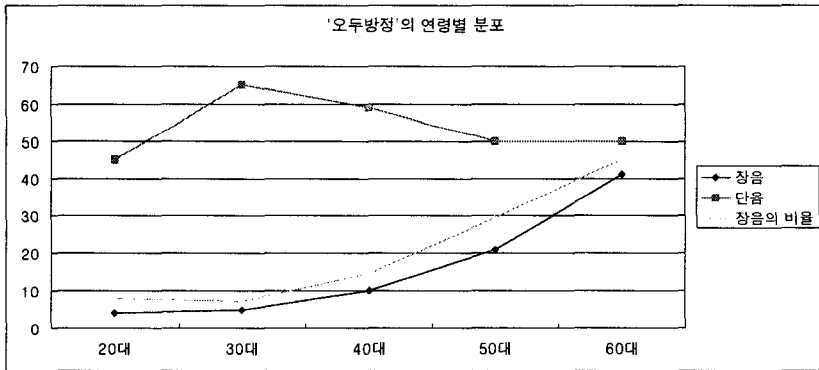
<그림 9> '방송'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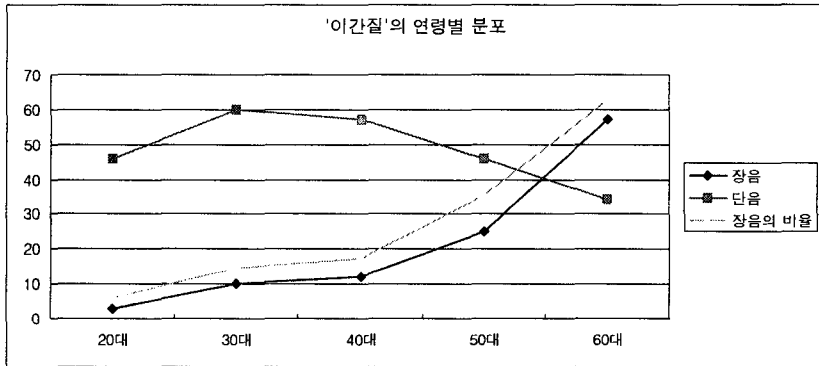
<그림 10> '빵고'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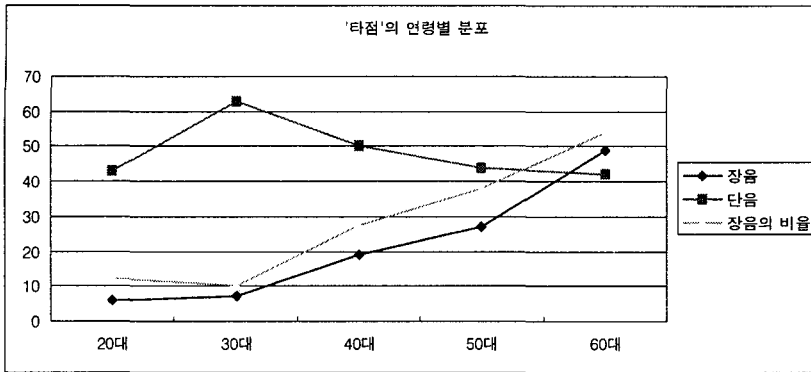
<그림 11> '선남선녀'의 연령별 분포



<그림 12> '오두방정'의 연령별 분포



<그림 13> '이간질'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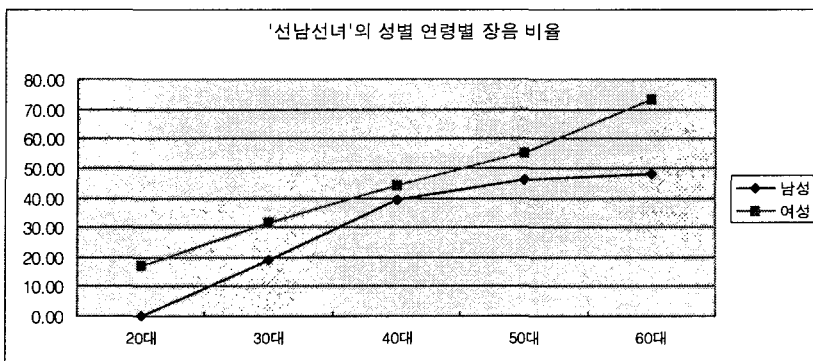


<그림 14> '타점'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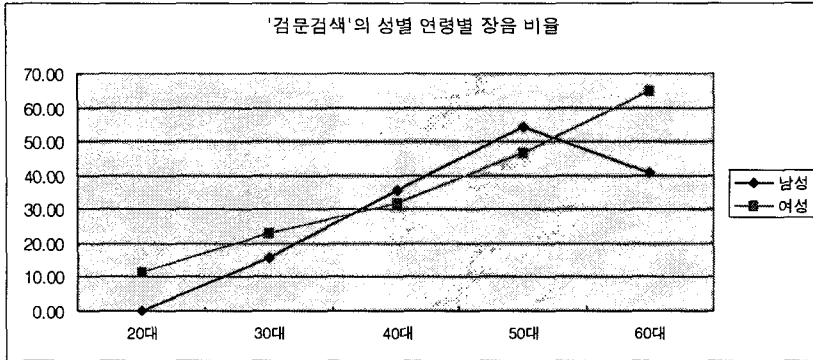
3.1.2 연령별 성별 장음 비율

앞에서 성별을 무시한 연령별 선호도가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그 패턴의 성립에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집단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알기 위해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을 알아보겠다.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연령별 선호도 패턴이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두 집단 중 어느 하나가 연령별 변이가 없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가 급격한 변이를 보이는 모습이라면 성별을 무시한 연령별 변이에 많은 의의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그림 15>와 유사한 우 상향 그래프를 보여서 연령별 변이에 기여하는 바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성별 변수는 장단음 선호도의 사회언어학적 변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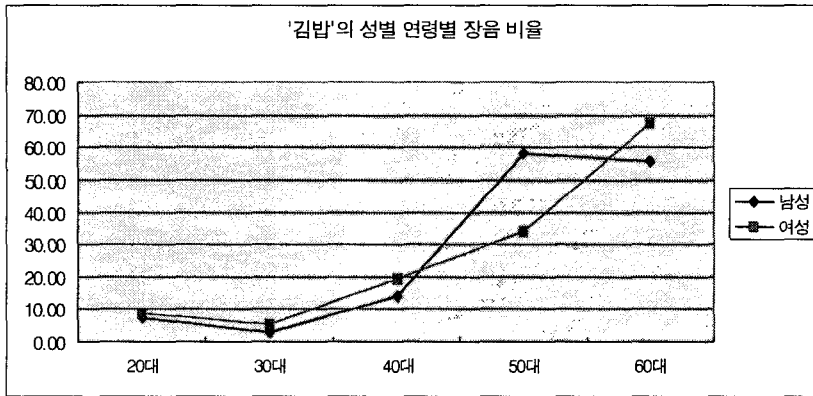
다만 다음의 <그림 16>, <그림 17>처럼 60대 이상의 남성 집단이 우 상향의 일반적인 그래프 형태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선호도를 보인 점이 목격된다. 이런 어휘는 '검문검색', '김밥', '도끼', '방송', '빵고', '오두방정', '이간질' 등 7개 어휘이다. 60대 이상 남성의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15> '선남선녀'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그림 16> '검문검색'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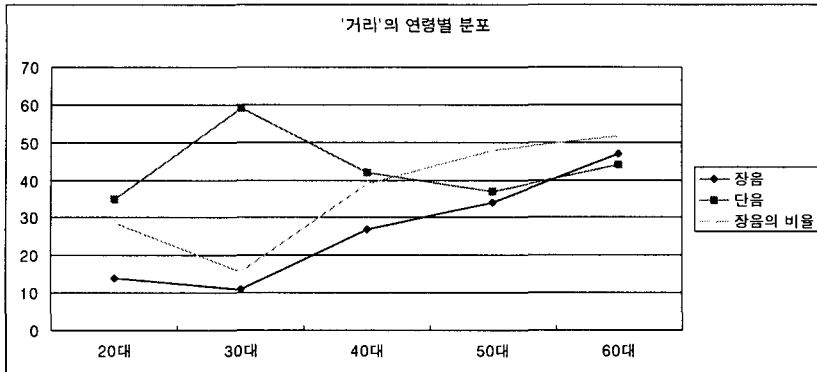


<그림 17> '김밥'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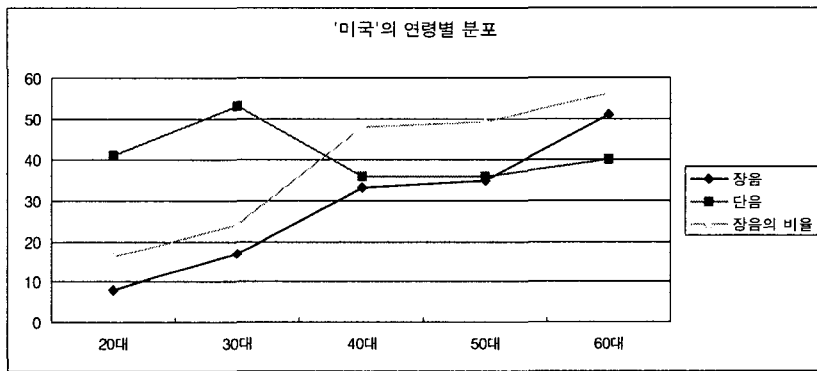
3.2 기저 단음의 경우

3.2.1 연령에 따른 선호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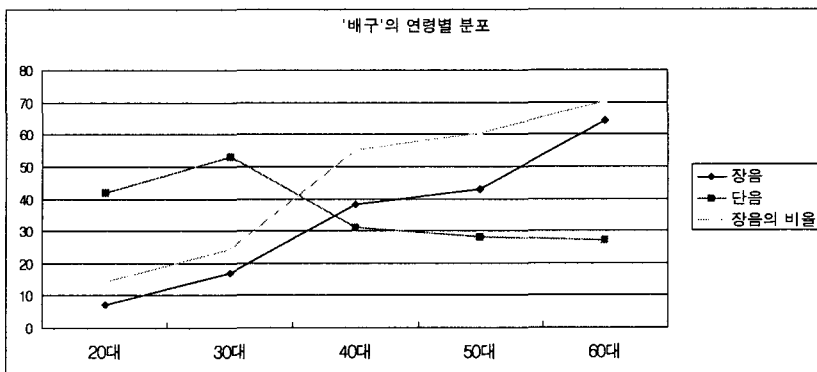
기저 단음 어휘에 대해서는 연령별 변이 양상이 기저 장음의 경우와 사뭇 다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기저 장음을 젊은 세대가 단음화 하고 있는 중이므로 기저 단음은 연령을 막론하고 단음 선호도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었다. 그러나 그런 예측과 달리 기저 단음 어휘 일부에 있어서도 앞의 기저 장음 어휘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즉 다음의 기저 단음 단어 4개에 대해서 전체 응답이 단음 우세였는데 60대 이상 집단에서 미약하나마 장음 우세 응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단어의 기저가 단음이라는 판단이 그른 것이 아니라면 서울말의 장단 구분이 60대 미만뿐 아니라 60대 이상의 노년층에 있어서도 일부 어휘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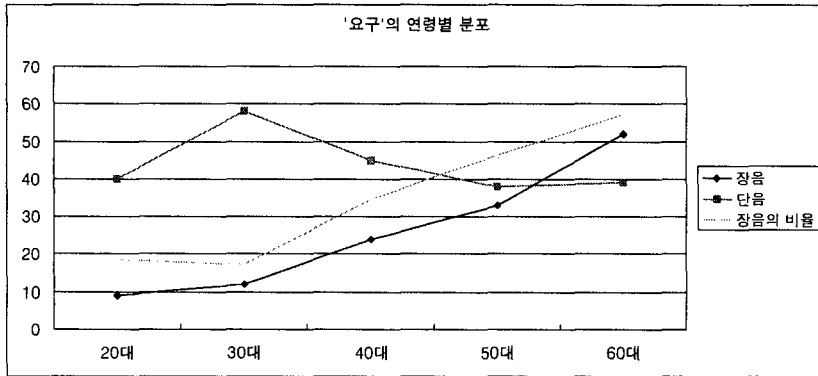
<그림 18> '거리'의 연령별 분포



<그림 19> '미국'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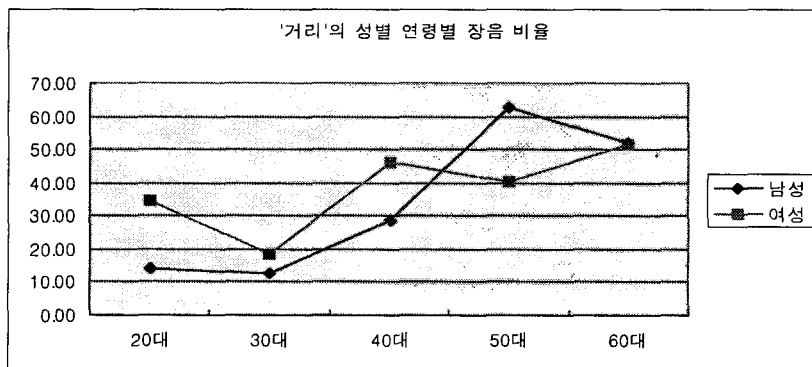
<그림 20> '배구'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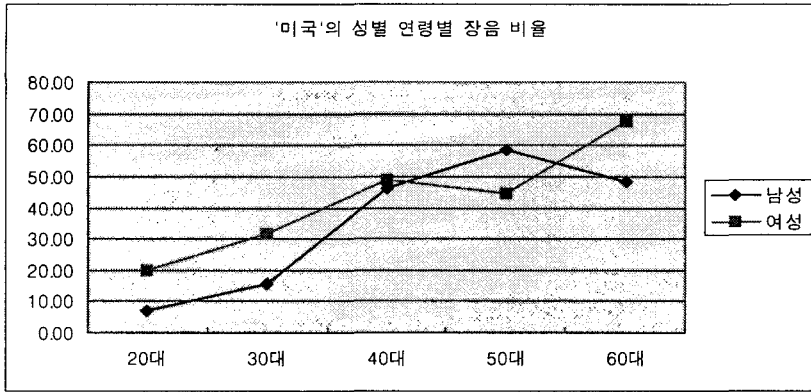
<그림 21> '요구'의 연령별 분포

3.2.2 연령별 성별 장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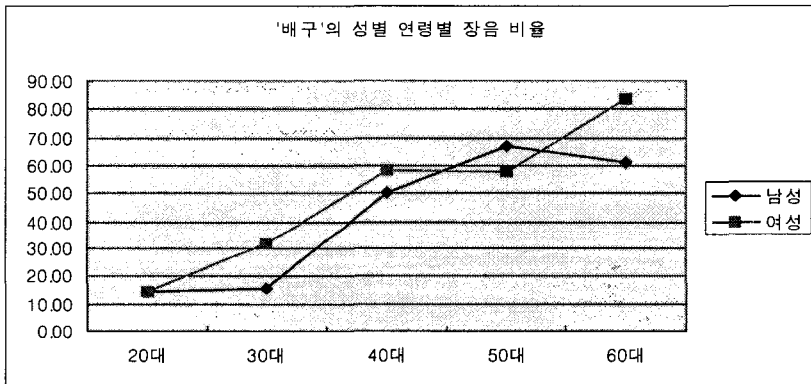
다음 그림들은 위에서 언급한 기저 3단음 어휘 4개의 연령별 성별 장음 비율인데, 기저 장음 어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저 단음 어휘에서도 성별 변수가 장단 선호도에 관련되는 바는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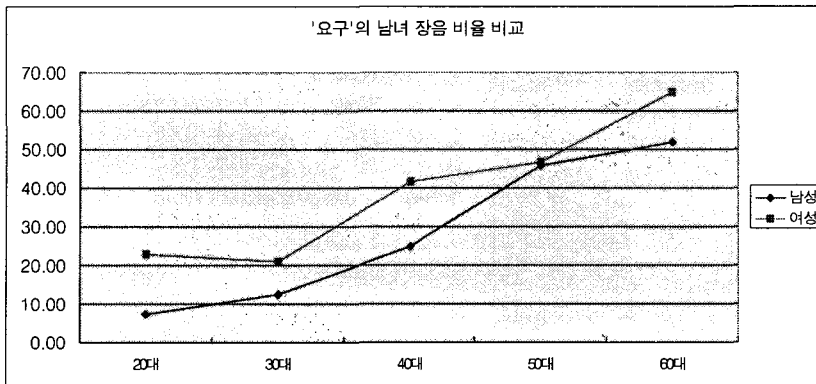
<그림 22> '거리'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그림 23> '미국'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그림 24> '배구'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그림 25> '요구'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4. 결 론

서울말의 장단음은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구분되지 않아서 결국 기저 장음이 사라지고 기저 단음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현상이 다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계량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이다.

본고에서는 무작위 추출한 기저 장음 단어의 경우 28개 중 14개, 기저 단음의 경우 12개 중 4개가 사회언어학적 변이의 하나인 연령별 변이를 보임을 살펴보았다. 나머지 단어는 체계적인 연령별 변이가 없이 단음 선호도가 우세하였다. 같이 고려한 성별 변수는 이번 조사에서 장단 구분에 작용하지 않았다. 즉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장단음의 실현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연령별 변이는 나이 든 세대로 갈수록 장음 응답의 비율이 높아 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기저 장음 단어 14개에 대한 화자 전체 응답에서 단음 응답이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나누지 않은 60대 이상 집단은 일관적으로 장음 응답을 우세하게 보여서 장단 구분의 세대간 차이를 잘 볼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어휘에서 60대 이상 남성의 선호도가 연령 비례를 따르지 않은 점이 특이하였다. 이를 무시한다면 연령별 변이가 언급된 1960년대와 지금의 차이는 아마도 기저 장음 선호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어휘의 수로 생각된다. 1960년대에는 기저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가 지금보다 많았을 것이며, 그 이후로 점점 기저 장음을 잃어 왔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연령별 변이 양상이 기저 장음에 있어서는 당연히 나타나리라고 예측하였던 것인데 반해, 기저 단음 단어 일부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의외의 결과였다. 즉 기저 단음 단어 4개에 대해서 전체 응답이 단음 우세였는데 60대 이상 집단에서 장음 우세 응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말의 장단 구분이 60대 미만뿐 아니라 60대 이상의 노년층에 있어서도 일부 어휘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의 결과만을 보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기저 장음을 유지하는 화자 비율이 높아지고(바꾸어 말하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장음으로 발음되는 어휘가 많아지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기저 장음이 기저 단음으로 바뀌어서 결국 서울말에서 기저 장음은 사라져 가는 추세를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차후 이번보다 더 폭넓은 조사 대상 어휘와 제보자를 취하는 조사가 있어서 서울말의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드러내 주기를 바라며, 더불어 학력, 계층 등 다른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대해서도 연구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선철, *표준 발음 실태 조사II*,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3.
 [2] 배주재, *한국어의 발음*, 서울: 삼경문화사, 2003.
 [3] 李崇寧, “現代 서울말의 accent의 考察”, *국어학논고*, pp.177-227, 서울: 동양출판사, 1960.
 (李崇寧, 李崇寧 國語學選集 3, 민음사, 1988에 재수록).
 [4] 이호영,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1996.
 [5] 정명숙·황국정, “국어 한자어의 장단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1)”, *어문논집*, 42, pp.285-299, 2000.
 [6] 이현복,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 연구”, *언어학*, 2호, pp.167-184, 1977.
 [7] 조남호,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2.
 [8]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접수일자: 2004년 4월 13일

게재결정: 2004년 6월 1일

▶ 김선철(Seoncheol Kim)

주소: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소속: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 연구부

전화: 02) 2669-9737

E-mail: sckim@mct.go.kr

▶ 권미영(Mi-yeong Kwon)

주소: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소속: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32) 860-8717

E-mail: umlaut@chol.com

▶ 황연신(Yoen-Shin Hwang)

주소: 151-745 서울시 신림 9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소속: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음성/음향 정보 연구실

전화: 019) 286-3721

E-mail: hys74@snu.ac.kr